

“힐링 생태 전북 만들 것”

6·13 지방선거... 송하진 도지사 후보, 10개 생태 공약 제시

전북산하 1000리길·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등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8일 '인간과 공존하는 아름다운 산들바다! 생태자연자원이 멋진 경쟁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신의 생태환경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지친 현대인들은 힐링을 위해 숲과 강, 바다를 찾지만"이라



며 "이런 키포크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생태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는 전북은 멋진 경쟁력을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전북산하 1000리길 조성사업,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새만금수목원 조성,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숲속의 작은 문화·복지시설, 생태당굴식물 그늘터널 시범사업, 전라북도 생태관광 페스티벌 개최, 지리정량 비담길 조성사업, 전북형 에너

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등 '생태여행 1번지 전라북도 건설'을 위해 10개의 세부실천공약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전라북도는 이미 민선6기에 1시간 1생태관광지를 선정하고 생태관광지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고대의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운곡습지와 지질의 역사를 간직한 마이산, 채석강 등 풍부한 생태자원을 가진 전북을 대한민국 힐링 생태 중심지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과 삶이 공존하는 ‘청년특구’ 만들겠다”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 청년공약 제시

6·13 지방선거 전주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후보가 8일 전주를 청년들의 일과 삶이 공존하는 전주청년희망특구로 만들겠다는 청년공약을 내놓았다.



김승수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복되는 취업 실패와 창업의 어려움 속에서 아픈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삶을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예술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주를 가장 젊고 창조적인 공간, 청년들의 일과 라이프스타일이 살아있는 그런 생

동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특과 중소기업연수원을 건립하고, 청년들의 창업공간이 될 지식산업센터 건립하는 등 청년 창업의 준비부터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유통·마케팅, 실제 시 재기까지 돕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전주청년희망특구에는 전국의 청년 기업가들이 교류하고 성장하는 컨벤션 기능과, 청년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편집숍, 파티와 클럽 문화가 접목된 공간 등을 갖춘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청년희망도시를 만들 정책공약으로 구직 실패로 우울증과 열매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회복시키기 위한 '청년취업 프로젝트 1000'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취업 프로젝트는 김 후보가 민선6기 전주시장 재임시절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 극복을 위해 청년들에게 심리치유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삶에 대한 의욕을 보내기 위해 추진한 대표적인 청년지원정책으로, 매일 50만 원씩 3개월 동안 활동수당을 지원하고 심리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재선 후에 지식산업센터와 청년특과 국립중소기업연수원, 국가청년희망산업단지 유치해서 매일 1000명의 청년들이 일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연인원 10만명이 찾아오는 전주청년희망특구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도, 전북지역 스타기업 15개사 선정

전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내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북지역 스타기업 15개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전북의 선도기업, 부산 하든셀피온 등 기존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지역 기업 성장모델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에 접목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및 매출 성장 등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기업을 '지역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주)테크카본, (주)코스텍, (주)대경산전, 한우물영농조합법인, (주)유니온씨티, 대륜산업(주), 디와이엘텍(주), (유)한풍제약, (주)비에스엔신소재, (주)한국콜드김제, (주)아시아, 삼일산업, 지리산한지(유), 정우정공(주), (주)티엘시 15개사이다.

전북지역 스타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억~400억, 최근 5년간

매출증가율 5%이상, 최근 3년간 R&D 투자율 1%이상인 전라북도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태조사, 3차 총괄책임자 발표평가에 이어 최종 스타기업운영위원회의 종합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담 PM관리 하에, 연간 5,000만원 이내의 지원비로 성장전략수립을 기초로 한 기술혁신활동 및 수출지원 활동에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2019년부터 기업당 2년간 최대 8억원(기업부담금 2억 원 포함)의 지원금을 활용한 상용화R&D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진성 기자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동향

“경마공원 재유치할 것”

정도진 정읍시장 후보

정도진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는 "경마공원의 재유치는 정읍경제활성화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지난 7일 전주 MBC TV토론회와 CBS·전북일보·주간매일·피디이 공동토론회에 출연해 "지방세 500억 원과 부수적인 수입, 일자리 1,000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마공원을 유치하는 것이 정읍시민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후보자의 사행성 논란 지적에 대해서는 "마권을 구입하며 신분증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도박에 빠질 일은 기우"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경마공원을 유치하는 것이, 정읍의 자랑인 내장산과 연계하는 세계적 관광의 완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함께 출연한 후보들에게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 또는 시민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방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음=리대환 기자



평화당 의원들 지원사격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

민주당 평화당 기호 4번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민주당 평화당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했다.

8일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 캠프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유세가 열린 김제시 홀플러스 사거리에는 민주당 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 유성업 국회의원, 김중회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박주현 국회의원 등이 지지유세를 벌였다.

또 이 자리에는 임정엽 도지사 후보, 임영택 도의원 후보, 장덕상 도의원 후보, 김제지역 시의원 후보 등이 총 출동해 1,000여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정성주 후보의 적극적인 지지를 실감하게 했다.

정 후보는 "7일 오전 실시된 TV토론회를 시청하셨는지 모르겠다"면서 "상대방 후보는 거짓말로 일관해왔으며 뽕소니 사고를 낸 비양심적인 사람으로서 정의와는 거리가 먼 인물로 시민들이 김제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제=곽노재 기자



실현 가능 공약 알리기 집중

백경태 무주군수 후보

백경태 더불어민주당 무주군수 후보가 어르신들을 위해 발표한 공약들이 지역 어르신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공약 가운데 전북도 동부권 지역 거점 농산물경매장 무주군 안성면 개실공약에 무주군을 비롯한 완주, 진안, 장수 등 인근지역 농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되고 있다.

백 후보는 중간대타인을 통한 농산물 판매방식은 농민들 노력만큼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농업인 적정수입 보장과 반딧불 농산물 판매를 증대를 위해서라도 경매장 건립은 가장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첨단시스템을 갖춘 경매장을 율하면 안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무주읍 내도리에 놀이시설 조성 등 공약도 내걸었다.

백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밝힌 공약들은 집권여당 군수로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실현가능한 공약들이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반딧불, 무주관광 성장동력”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가 8일 읍·면별 특색화 관광 개발 등 관광객 유치에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황 후보는 "무주는 덕유산 국립공원을 비롯해 무주리조트, 태권도원을 축으로 천혜의 4계절 관광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한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황 후보는 5대 관광 핵심전략으로 ▲힐링과 치유의 청정환경 조성 ▲반딧불문화창달(반딧불을 테마로 한 문화) ▲사계절 관광의 요람 ▲태권도원 세계화 ▲관광·문화·환경·교통의 중심 무주건설을 세우고 관광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황 후보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무주관광 전략은 청정이미지와 반딧불, 태권도원의 활성화가 무주관광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희망제작소와 정책협약 체결

이항로 진안군수 후보

이항로 진안군수 후보는 8일 오전 11시 30분 시민사회 싱크탱크인 (재)희망제작소(소장 김제선)와 이항로 후보 동행캠프 사무실에서 진안지역 희망 만들기 정책협약 식을 가졌다.

이날 양측은 정책협약을 통해 지방자치의 주인은 시민이자, 주민이며,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간 협치가 지역역사의 동력이라는 인식 아래 사람 중심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항로 후보는 희망제작소가 추구하는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구축, 지역의 자원과 혁신으로 일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현 세대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 구축과 실천 등을 약속했다.

한편 (재)희망제작소는 '21세기 실학운동'이라는 슬로건으로 2006년 출범한 민간 싱크탱크로, 주민참여, 지방자치, 지역재생, 사회적 경제, 시민성 강화 등 다양한 혁신 대안을 제시해 왔다. /진안=우태만 기자

